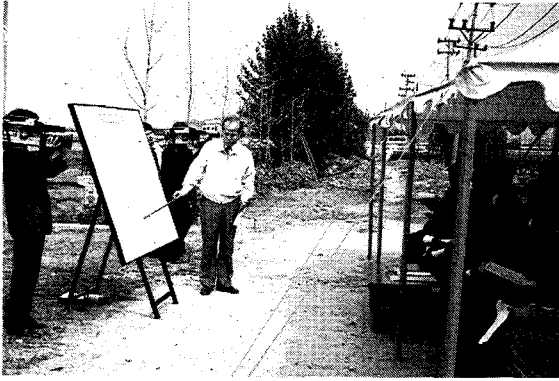


국회보사위원회

환경오염실태 시찰



국회보사위원회(위원장 신상우)에서는 지난 9월 2일 난지도 쓰레기 매입장 및 안양천등 환경오염 우심 지역을 현지 시찰하여 관계자들로 부터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시립부녀보호소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정신박약자 수용소인 성혜원을 방문하였으며, 이후 태평양화학 수원공장, 동아제약 안양공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둘러보았다.

한편, 신위원장은「국회보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의 보장을 위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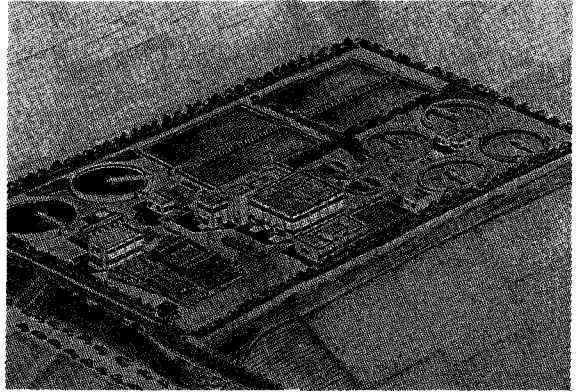
보사위원회는 이번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차원의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관리공단

이리사업소 개소 및 현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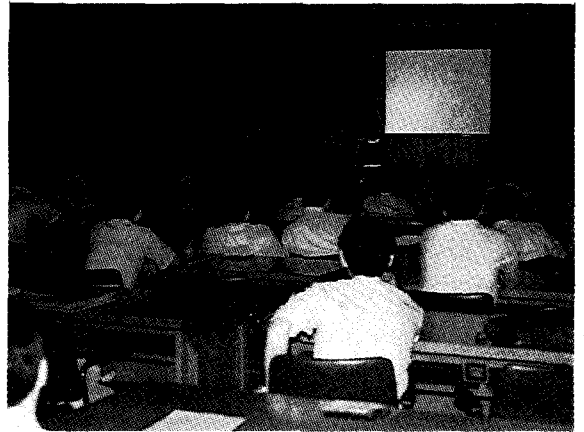
전북 이리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처리하여 만경강의 수질개선과 주변환경보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환경관리공단 이리사업소가 지난 9월9일 오전 관계기관장과 지역주민, 배출업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이리사업소의 개소로 이리시 1·2공단 입주업체들은 별도의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폐수처리장에 의해 폐수를 공동처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수처리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시설비 및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보전학회

초청강연회 개최



한국대기보전학회는 산성비 및 대기질분야의 전문가인 미국 텍사스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Liljestrand박사를 초청하여 지난 9월12일 강연회를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는 산성비 분야에 관한 「The Use of Fractionated Fingerprints for the Source Apportionment of Wet and Dry Deposition」과 대기질분야에 관한 「Monitoring of Trace Atmospheric Pollutants and their Deposition Fluxes」등의 발표를 하였다.

환경법학회

새회장 취임

김이열교수(중앙대 법대)가 최근 스칸디나비아클럽에서 열린 환경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입회장으로 피선되었다.

국립환경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 환경연구조사 사업의 중추기능으로 도약 -

우리나라 환경과학연구의 총본산인 환경청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9월1일로써 개원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78년 보건사회부 소속하의 국립환경연구소로 발족된 동 연구원은 '80년 환경청 발족에 따라 환경청 소속으로 이관된 후, 직제 개편하여 확충되었으며 '86년 국립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었다.

'78년이후 동 연구원은 각종 환경연구조사 사업 22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시험검사 27,237건, 환경 전문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7,216명, 환경분야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70회 등을 비롯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기준 설정과 시험방법개발 등을 통해 환경정책수립에 기여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으로 승격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박성배)은 지난 8월19일자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되었다.

동연구원은 의약품, 축산물, 수질, 대기등에 관한 검정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이번 승격으로 더욱 국민의 보건환경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삼성통상

SORBOND 응집제 국내총대리점

삼성통상(대표·김유필)은 AMERICAN COLLOID 사에 의해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SORBOND 응집제의 국내 총대리점으로 지정되어 보다 많은 사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폐수수질검사를 무료제공하고 있다.

SORBOND응집제는 비소, 수은, 납, 은, 카드뮴, 바리움, 크로미움 등의 중금속성 폐기물 여과시험에서 미국의 EPA한계허용치를 100% 만족시킨 AQUEOUS WASTE 응집제로 7종류가 있어 폐수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의전화/716-8363

우림상사

전화국번변경

미생물 폐수처리업체로써 잘 알려진 우림상사(대표·이상호)가 지난 8월23일자로 전화국번이 2국에서 49국으로 변경되었다.

변경전화/(0343) 49-2286

F A X/ (0343) 47-2286

